

‘보이스 피싱’ 기승



금감원 직원인데... 할머니 통장에서 돈 빠져나가니 계좌 이체하세요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전화금융사기)=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알아올린다는 뜻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사기 수법이다.

노인 상대 우체국·은행 등 사칭 사기 수법 교묘...광주·전남 피해 5배 급증

나 경품행사 당첨 등의 다양한 변종 수법이 등장하고 있고, 전화금융사기를 막아주겠다는 진화된 수법까지 등장했다.

구례읍 백련리 안모(71)씨는 지난 5일 전화를 통해 “H은행인데 300만 원을 대출을 해 간 뒤 왜 갚지 않느냐”라는 전화를 받았다. 안씨가 “대출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하자 그는 “정말이냐. 그렇다면 전화금융사기를 당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이어 “경찰”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와 은행 계좌 등 개인정보를 물어오는 등 전화를 시도했다.

지난해 연말에는 광주·전남지역에서 자동응답전화(ARS)를 통해 ‘KT 전화국’을 사칭, 주민번호와 고객명의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예금을 인출해가는 사기전화가 잇따랐다.

수법은 주로 ‘전화요금 미납했다’는 ARS 안내와 함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식이었다. 우체국 택배전사기도 ‘택배 도착’을 빌미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유사한 방식이다.

◇대책은 없나? = 지난해 은행의 자동화기기(CD/ATM)에 ‘전화사기를 조심하라’는 주의 문구가 나붙었고, ‘보이스 피싱’ 피해예방 삽계명까지 발표했다. 또 1회 계좌이체 한도가 축소되고, 의심계좌는 자동화기기 거래를 금지하고 창구거래만 가능하게 하는 등 대책이 마련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집중 단속 등으로 주춤했던 ‘보이스 피싱’이 지난해 연말 이후 극성을 부리고 있어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스스로 주의의 기울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원모=정은조기자 ejchung@

인터넷 사이트 전화번호 등 삭제

■보이스 피싱 예방법

‘보이스 피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동창회나 동호회 사이트의 주소록과 비상 연락망 등의 개인정보 파일을 삭제하는 것이 급선무다. 발신자표시가 없거나 001-080-030 등 저를 모르는 국제전화번호는 받지 않아야 한다. 녹음펜트로 시작되거나 현금지급기 이용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

전화금융사기를 당해 돈을 송금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고 가까운 은행이나 금감원을 통해 ‘계좌지급정지’와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에 등록, 추가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굴 채취 60대 2명 사망

굴을 따라 나갔던 60대 여성 2명이 잇따라 숨진 채로 발견됐다.

목포해경은 9일 오후 1시께 무안군 해제면 흥통해수욕장 인근 해안에서 굴을 채취하던 주모(여·65)씨가 숨져있던 것을 동생(55)이 발견, 신고했다고 밝혔다. 주씨의 가족들은 “주씨가 지난 8일 새벽 6시께 혼자서 굴

을 따라나간 뒤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해경에 신고했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6시께 신안군 증도면 병풍도 해안에서 굴을 채취하던 정모(여·60)씨가 숨져있던 것을 마을 주민들이 발견했다. 마을주민들은 혼자 굴을 따라 나간 정씨가 돌아오지 않자 인근을 수색하던 중 바닷가에 엎드린 채 숨져 있는 정씨를 발견했다. /목포=이성휴기자 lsh@



8일 '광주·전남생태유아공동체' 소속 우주어린이집 원생들이 두 달 동안 스스로 모은 저금통을 들여보이며 환하게 웃고 있다. 성금은 북해 어린이를 돕는데 쓰여질 예정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北 친구 돕자” 고사리손들 저금통 털어

고사리손으로 모은 썩지않은 북해 어린이들에게 보내진다.

광주·전남 22개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구성된 ‘광주·전남생태유아공동체’(이사장 김덕건)가 광주·전남 4개 어린이집 원생들이 모은 저금통을 통해 모은 250여만 원을 ‘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상임대표 광민·김혁중·윤장현)에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한 금액은 지난해 10월부터 모금을 시작했던 우주어린이집, 희망어린이집, 산들바람어린이집, 강진푸른어린이집 등 광주·전남 4개 어린이집 원생들이 모은 것이다. 어린이들은 어린이집에 비치된 돼지저금통에 적게는

광주·전남 유치원생

한푼 두푼 용돈 모아

250만원 보내기로

10원에서 많게는 1천원까지 썩지않은 용돈을 모았다.

광주·전남생태유아공동체 체회관 사무국장은 “원장들끼리 모여 얘기를 나누던 중 고통받는 북한 어린이들을 돕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 나온 아이디어”라며 “22개 회원 어린이집이 모두 참가해 연말 목표 금액을 1천만원으로 잡았다”고 말했다. 앞으로 북한의 비

슷한 또래 어린이집과 자매결연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주어린이집 김인경(7·광주시 남구 방림동) 어린이는 “엄마가 준 용돈에서 남는 돈을 저금통에 넣었다”며 “밤도 못 먹는 북한 어린이들이 있다고 해서 10원도 모으고, 100원도 모았다”고 말했다. 정봉숙 원장은 “아이들에게 취지를 잘 설명해줬더니 의외로 호응도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3천만~4천만원 상당의 재원을 교과서 용지를 북한에 보내는 등 북한 어린이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광주 원정 고리 사채 6억 행거

대구·경북 업자 13명 적발

대구에서 광주까지 원정과 고리 대부업을 해 온 사채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광주지역에서 불법 고리 대부업을 벌여 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김모(30·대구시 수성구)씨 등 13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업자 2명과 종업원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05년 4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지역 대학생과 유형업소 여종업원 등 600

여명에게 15억원 가량을 빌려주고 6억원 상당을 이자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 등은 2~3개월 기간으로 1인당 100만~1천만원까지 빌려주면서 법정 이자율 49%를 초과한 연 200~400%의 이자율을 적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광주지역 아파트나 원룸 등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조직원들을 합숙시켜가며 5개 자치구별로 지역을 분담해 대학가와 원룸촌·유형·속박업소·미용실 등에 ‘무담보’와 ‘즉시대출’ 등이 적힌 광고물을 살포해 대출자들을 모집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버스·트럭 충돌 3명 사망

9일 오후 7시 5분께 무안군 청계면 남안리 청계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목포에서 무안을 오가는 목포 T역 객 전남70아11XX호 좌석버스와 F택배 소속 전남88742XX호 1t트럭이 정면으로 충돌, 트럭에 탑승했던 3명이 사망하고 5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나원침 (7405) 김장동



음주운전 잡고 보니 수억대 사기범

음주운전으로 음주단속을 걸리려 하던 사기범이 음주단속에 걸리는 바람에 달아.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박모(44·진도군 진도읍)씨는 지난 8일 새벽 1시 광주시 북구 삼각동 S아파트 앞 도로에서 로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음주단속 중이던 북부경찰 교통과 소속 오원규(44) 경사에게 적발됐다는 것.

○박씨는 단속 경찰에게 “진도군 청 공무원인데 음주 운전이 적발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니 한 번만 봐 달라”며 하소연했는데, 신원 조회 결과 7억원대 사기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A급 수배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71%로 밝혀짐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박씨의 신병을 수배 관서인 광주 남부경찰서로 인계.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조이트레블 (주) 조이트레블

대구광역시 동구 중동로 1가 57번길 21

대표전화 (0537) 234-3222

인근 아파트

2천여 평의 영산아파트

가장 저렴한 가격에, 가장 좋은 위치에서

대자연속의 풍나루 콘도(2실), 무수 온천 어빌 4실

339,000

대자연속의 풍나루 콘도, 일편 전층 뷰전 호실에서... 4실

369,000

저렴한 가격과 함께 일편 전층 뷰전에서 온천... 4실

449,000

429,000

무엇이든 광주·전남을 위한

429,000 459,000

429,000 459,000

2008년 새해! 귀하의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든 아파트, 공공 전세

무엇이든 아파트 (1실)	299,000
무엇이든 아파트 (2실)	399,000
무엇이든 아파트 (3실)	499,000
무엇이든 아파트 (4실)	599,000
무엇이든 아파트 (5실)	699,000

무안 ↔ 대안

부동산

중국역사의 파기와 미래가 공존하는 아파트

599,000 ~

무안 ↔ 아산

부동산

일편 전층 뷰전 호실

179,000 ~

부동산

일편 전층 뷰전 호실

249,000 ~

부동산

일편 전층 뷰전 호실

179,000 ~

239,000 ~

189,000